

월요논단



김성연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뭍바이 총영사

인도(印度)알기 3 : 인도 영화의 상징, 볼리우드

볼리우드(Bollywood)는 Bombay (현 뭍바이)와 Hollywood의 합성어로, 인도 전체 영화인 Indywood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년대에 황금기를 맞이했다. 국민 배우라 칭송받는 Amitabh Bachchan이 이때 탄생했고,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Massala가 관행으로 정착된 것도 이 시기다.

지 못하고 있는 곳이 인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가 IT가 발달되어 있어 영화에매가 모바일과 인터넷 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run Dhawan, Kareena Kapoor 등이 그러한데, 이는 직업이자 가업으로 정착된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열린마당

4·3은 청소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



강혜진 신성여자중학교 3학년

방향을 묻는 질문에 '4·3 평화·인권 교육 주간만이 아닌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란다'가 51%였고, 이어 '4·3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6%였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4·3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에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90%, 중학교 96%, 고등학교 82%가 4·3 관련 상설 게시판이 없다는 점과 3~4%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교에 교내 4·3 관련 동아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뉴스-in

추석연휴 공설묘지 편의시설 관리 부실

성묘객들 불편 호소

○...제주시가 공설묘지 편의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석 성묘객들이 불편을 호소.

시는 추석연휴기간에 성묘객들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주변 교통정리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공설묘지 화장실은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

한 시민은 "해외에서는 묘지를 공원화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며 "장사시설을 필수 사회기반시설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 교대묘지가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희망

○...서귀포시가 제주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0일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센터 종사자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

며, 어린이집에서 다문화이해교육 확대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양운경 서귀포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도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돕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문화예술재단 논란 증폭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성희롱 사건 말고도 지역인재 발굴 전형 심사 과정, 직원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는 상황.

15일 제주문화재단 요청으로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건 기자간담회'에서 갑질로 인한 모 팀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고경대 이사장은 인사 조치와 더불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

고 이사장은 "협력과 소통을 강조해왔는데 이같은 일이 생겼다"며 내부 현대대책위원회 등을 구성중이라고 첨언. 진선희기자

사설

농작물 피해 농가에 실질적 지원책 기대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덮치면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는 의외로 컸습니다. 수확을 앞둔 작물이나 파종한 작물이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파종한 작물은 물에 잠기고 강풍에 거의 쓸대밭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감자·당근·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작물 별로 농약대와 대과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동무 흄림재배로 인한 가격폭락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외에 추가 특별 지원대책도 추진합니다.

실제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도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제주도가 집계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5494ha에 이릅니다. 작물별로는 콩 1361ha, 당근 1100ha, 감자 991ha, 양배추 560ha, 월동무 480ha입니다.

어촌뉴딜 사업 공모, 안이한 준비 안된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제주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회문화와 경제 환경을 유도하는 일종의 어촌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촌뉴딜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모두 3조원 규모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100곳 선정에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250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벌써부터 지자체간 관심과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 제주시 6곳, 서귀포시 지역 5곳으로 신청 예산은 모두 1257억 4300만원 규모에 이릅니다. 최종 선정은 발표 및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달 열린 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특색없는 계획으로 수렴·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신청에 앞서 내용 보완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을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제출한 것은 선택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고 김재필(前 초등교장 어머니 여산 송씨 평규(향년 100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5일 12시 40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16일(월) ▶발인일시: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한울누리공원

부고 김봉용(前 제주시청 공무원) 아버지 광신김공 정수(향년 8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4일 05시 45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17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구좌읍 기족묘지

부고 고영남(인제대학교수)·승희·성호(한국어) 어머니 파평윤씨 방자(향년 7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3일 오전 8시 58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17일(화요일) ▶발 안: 2019년 9월 18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1층) ▶장 지: 양지공원→남곡선원

부고 송상보(前 중등교사) 어머니 권유오씨 계생(안나·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4일 09시 15분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17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9시 ▶발인장소: 천주교 서문성당 ▶장 지: 오라동 기족묘지(오라이동 37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박평숙(前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장·향년 6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 배우자 이미란 아들 박경환 딸 박지애 은애 사 위 강문성 조재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